The Economy

LS Edge Investment Strategy | 투자코멘트 | 2026. 4. 1

3월 한국 수출입
역대 최대 수출액 달성, 4월 경계심리 지속

경제/환율 | **최광혁** | kh.choi@ls-sec.co.kr

한국 수출금액 800억 달러 상회

한국 수출 금액이 861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율 48.3%, 수입 증가율 13.2%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는 257억 4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수치를 갱신했다. 무역수지 및 수출입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이 64.2%로 증가하고 미국으로의 수출은 47.1%로 증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G2 수출 증가율 특히 중국 수출 증가율이 하락 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 부분 희석될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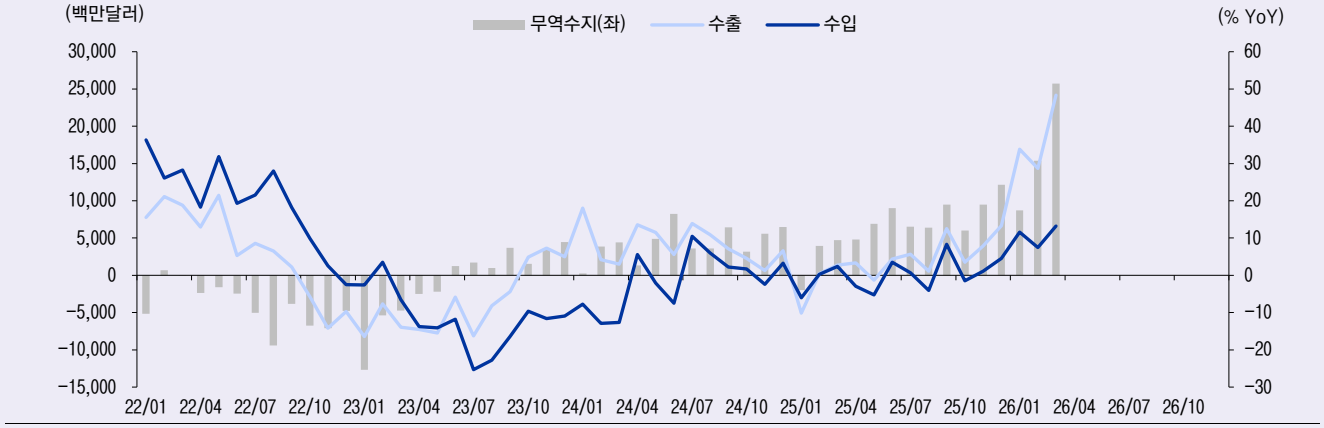
주요 업종 수출 증가율 회복

여전히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품목 수출 증가율이 14.5%로 (+)전환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물론 반도체 투자 과정에서 인프라, 전력설비, SSD 등 많은 업종이 주요 품목 카테고리로 포함되어 AI관련 수출 증가율을 정확하게 제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석유제품 수출 증가율이 54.9% 상승하고 석유화학업종 수출 증가율이 5.8%로 모두 (+)로 전환했다는 점과 이차 전지와 바이오 업종의 수출 증가율도 (+)전환했다는 점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국으로의 수출 품목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주변기기와 석유제품,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대중국 수출 품목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중국의 수요 개선 기대와 함께 한국 수출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월은 좋다. 하지만 불안 요인은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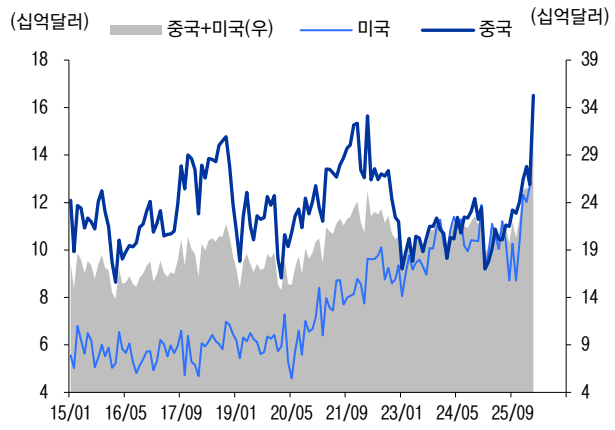
3월을 기준으로 한국 수출입을 분석했을 때 부정적으로 판단할 이유는 없다. 다만 4월부터 중동사태의 영향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지표의 변화는 좀 더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동으로의 수출 증가율은 3월부터 이미 49%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원료 수급 영향으로 3월 넷째 주 이후 석유화학 수출량은 17% 감소하는 흐름으로 전환됐다. 반도체 수출이 항공 운송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의 전체 수출이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은 낮지만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긍정적이지만 45.4%까지 상승한 반도체 수출 비중도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의 수출 호황의 원인임과 동시에 향후 수출에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작용할 변수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림1 **한국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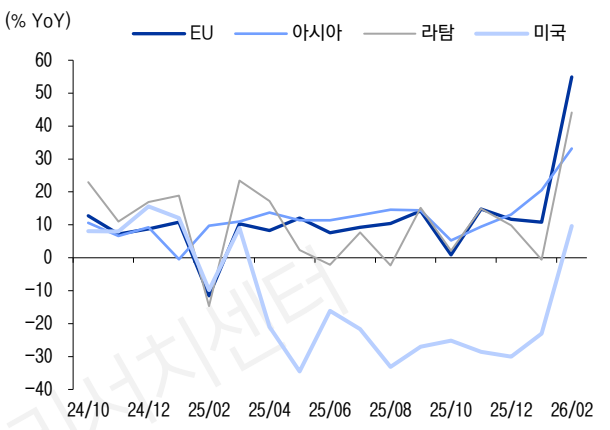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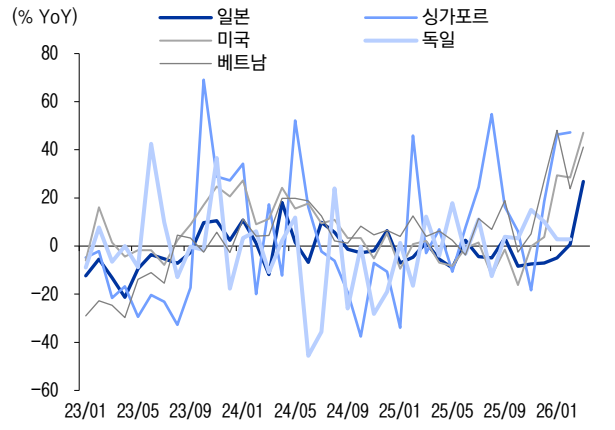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중국의 국가별 수출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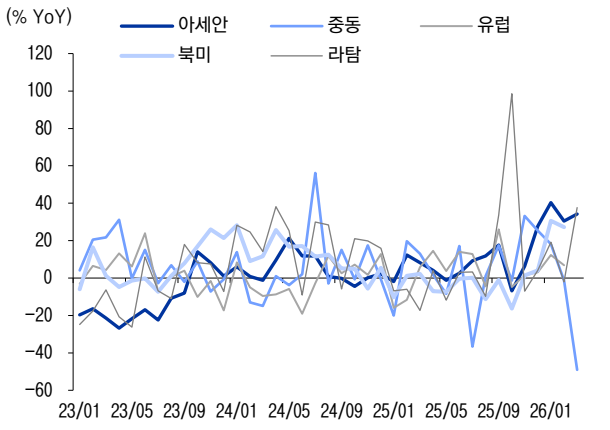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한국의 주요국 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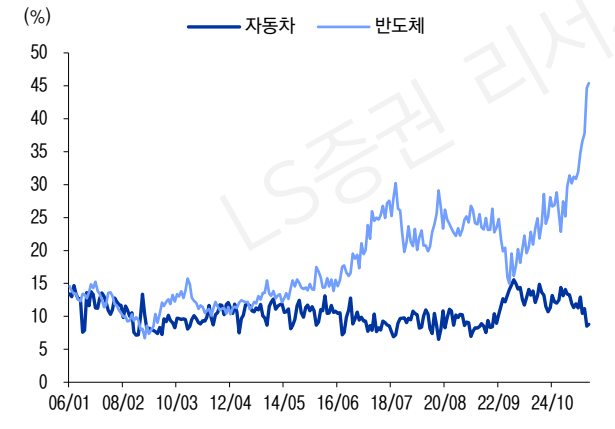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한국의 주요국 지역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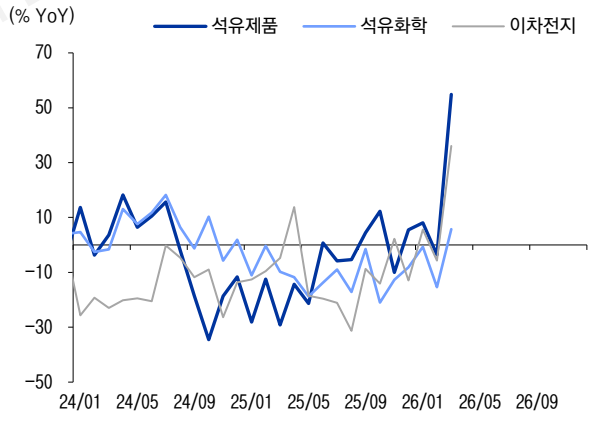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비중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반도체 외 품목의 수출 증가율 회복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최광혁).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